



# 광양바이오매스 건설 반대 캠페인

### 광양만권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 해치는 신규 화력발전소는 OUT!

### 자연보호 광양시협의회 “미세먼지 주범 화력발전소 백지화하라”

자연보호총연맹 광양시협의회(회장 이흥재) 회원 30여 명은 지난 26일 시민이 가장 많이 집결하는 광양 5일 장날을 맞아 시장 앞길 로터리에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폐기를 화학 미세먼지와 바다로 유입될 수 있는 온 배수로 인한 환경 파괴의 요인을 가진 ‘광양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될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로 둔갑한 목질계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는 나무를 태워 전기를 생산, 대규모 산림파괴로 생물 다양성 손실과 발전원료 해외수입 의존 등 유해물질



이 함유된 원료 소각 시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 소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전락할 위험은 물론 특히 발전소 인근 대규모

주거지 공기질 악화로 시민 건강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5일과 13일에는 광양시 민간 환경단체가 컨테이너 부두 사거리에서 발전소 건설을 적극 반대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참여한 6개 시민 환경단체는 (환경보전 송암회, 자연보호 광양시협의회, 광양 명예환경감시협의회,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광양지역본부, 섬진강환경감시단, 광양동부 환경보존회) “미세먼지의 주범 쓰레기 화력발전소 사업은 안 된다.”며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한편 26일 캠페인을 마친 자연보호 광양시협의회 회원들은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하고, 재래시장 주변에 쓰레기를 줍는 등 정화활동을 펼쳤다.

광양=김충권 기자

## 광양교육지원청, 자유학기제 이해 교육

중학교 예비 학부모 및 중학교 1학년 학부모 216명 대상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임원제)은 최근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중학교 예비 학부모 및 중학교 1학년 학부모 216명을 대상으로 ‘2017 자유학기제 학부모 이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자유학기제의 정책 방향과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반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자녀들이 자유학기제 학교 교육에 적응하여 자신의 꿈을 키우며, 미래를 준비하는 건강한 중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또한, 신성욱 과학저널리스트 작가의 ‘뇌과학이 알려 준 새로운 생각’이라는 특강을 통해 자녀들의 건강한 뇌 발달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방향 그리고

각종 교육활동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더 많은 학부모들이 함께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뇌 발달과 부모의 역할”이라는 내용의 특강을 들으면서 그동안 몰랐던 우리 자녀들의 행동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여 밝고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임원제 교육장은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부여하여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한 다양한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웃음이 넘쳐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남동부취재본부장=김승호 기자

## 순천만천문대, ‘우리 가족 과학탐험대’ 운영

내달 4일부터 5일까지

순천시는 순천만천문대에서 오는 8월 4일과 5일 이틀간 ‘우리 가족 과학탐험대’를 운영한다.

지난 8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관측 행사는 가족단위 프로그램으로 여름철 밤하늘을 수놓는 별자리 이야기를 다룬 예정이다.

우리 가족 과학탐험대 행사에서는 투영실 체험, 전체 관측, 달 만들기, 천문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더운 한여름 밤 가족과 함께 천체관측도 하면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특색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8월 4일과 5일은 음력 7월 13일, 14일로 밝은 달과 거문고자리, 백조자리, 전갈자리 등 여름철 천체들을 관측하기에 최적의 시기이다.

이번 행사는 2017년도 정부의 지원(과학기술진흥기금/북권기금)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며, 홈페이지(http://www.suncheonbay.go.kr)를 통해 예약접수 후 참여가 가능하다.

기타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만천문대(061-749-6074)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종영 기자

## 순천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원탁토론회 시민참여자 모집

내달 3일 개최

순천시는 오는 8월 3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참여 순천형 공감 정책 개발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민 원탁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원탁 토론회는 자발적 참여 시민들의 토론과 합의에 의한 속의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기존의 발표형 토론회를 벗어나 상하가 없는 원탁에서 참가

자 원원이 참여·공감·소통 등의 토론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실시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의 원인과 국내의 상황 등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와 함께 참여 시민들이 원탁 테이블에 10명씩 둘러앉아 자유롭게 상호 토론과 합의로 나온 정책 아이디어들을 유사한 것끼리 묶어 스티커 투표표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선정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시민의 생각은 2018년 신규 시책으로 구체화될 것이기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다음달 2일까지 순천시 환경보호과(749-5784~6)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토론회 참가 시민들은 참여시간을 자원봉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순천=김종영 기자

## 나주시, 목사고을 배달강좌 운영

읍·면지역 주민 5명 이상 신청 가능...내달 1일~8일까지 신청



100세 시대 다양한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민의 소통 및 역량강화에 주력하는 나주시 평생학습관이 거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목사고을 배

달강좌’를 오는 8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강좌는 평생교육 기회가 부족했던 주민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기관 방문이 어려운 읍·면 단위 지역의 생활 근거리에서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여건 상 참여하지 못해 아쉬워했던 주민들의 마음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 대상자는 읍·면지역 주민 5

명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마을 회관 및 관내 공공장소를 학습 공간으로 지정하면 된다.

또한 수강 희망 과목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선정하거나, 나주시평생학습정보망의 강사은행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기간 및 방법은 오는 8월 1일~8일까지(주말제외) 나주시평생학습관으로 방문·신청하면 되며, 최종 선정된 교육은 오는 12월까지 운영될 방침이다.

한편, 나주시는 올해 평생학습교육기관 9개소를 선정해, 강좌 당 1백만 원 이내의 강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평생학습관(☎339-4584~4585)에 문의하면 된다.



## 회순교육지원청, 나를 찾아가는 학습 캠프

학습력 또는 자존감 향상 필요한 학생 위해 마련

회순교육지원청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 동안 보성군청소년수련원에서 관내 초중학생 32명을 대상으로 ‘나를 찾아가는 학습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26일 회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혜인)에 따르면 ‘나를 찾아가는 학습 캠프’는 기초학습(3R's) 미도달 및 학습부진 경계선 학생, 학습력 또는 자존감 향상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마련된 여름방학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이며, 방학시작과 함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자 목포 순천 수해피해기연구회 회원과 회순 관내 교사가 4+1(학생 4명당 교사 1명)로 부진이 가장 많은 수학 학습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평소 수학교과를 연구해 오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교사들이지만 처음 접하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공부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생활 관련 동기유발 프로그램을 통해 관심을 이끌어 내고 다양한 교구를 활용하여 계속해서 생각하게 함으로써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왔다. 스포츠클라이밍, 스틱밤도미노, 다도, 천체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면서 캠프 후에도 자신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목포이로초 장주우 수석교사는 “수학바라기 회원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있는 활동이었다”고 소감을 남겼다.

특히, 무안오룡초 김 모 교사 “이 아이들의 답안이면 좋겠다. 마음을 다독이고 싶다”고 말하며 인성교육 중심수업으로 학생들의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감싸주는 교사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회순=박순철 기자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라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차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므로,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국가건강검진

h-well  
국민건강보험  
보건복지부  
국가건강검진